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4/ 9/ 25 통권 1694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2024년 상반기 회계심사  
감리 주요 지적사례

###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전사적 리스크 관리
- 사택을 제공받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비과세 소득임
- 2024년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税計經營戰略

### 〈제조업 조세감면 적용 위한 위탁제조업의 범위〉

적용구분	개념, 범위, 구체적 적용예시, 조세감면 혜택 적용
제조업 감면 중요항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중소기업 창업감면 등 조특법 상의 많은 감면규정이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가업상속공제 300~600억원 적용(상속·증여세법 제18조의2)
제조업의 본질	유기·무기물질(원재료)에 기계적·화학적 작용으로 새로운 물질로 전환·변형하는 산업 : 제품 탄생 ↔ 구입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판매하면 도·소매업
제조업의 종류	(한국산업분류) 음식료 등, 섬유·의복 등, 목재·나무 등, 종이 등, 화합물·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 등, 비금속광물제품, 제1차 금속산업, 조립금속·기계·장비, 기타 제조업
제조업의 핵심	① 유기·무기물 등 원재료 ② 생산설비와 제조인력 ③ 제조·가공·생산활동 등 ④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 생산(제외 : 선별, 분리, 포장, 재포장 등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업 아님 : 유통, 도·소매업 분류)
위탁제조업 포함	원재료나 생산설비가 없고,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아도 제조업으로 분류(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① 직접 기획	생산할 제품의 직접기획(고안 + 디자인 + 견본 제작 포함), 포괄위탁은 도매·유통업임
② 자기명의 제조	원재료를 제조자에게 제공하거나, 제조업자가 직접 구입한 원재료에 의한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제조원에 명칭 기재, OEM제조 계약서 필요), 기재 안하면 도·소매, 유통업
③ 자기책임판매	해당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ODM 계약서는 안됨, 부분인수는 유통업)

◆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 (제조업의 범위)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업으로 본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안세회계법인대표이사박윤중공인회계사작성)

###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른 미국법인에 양도하면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법인세액에 해당 안됨 (p.12)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 주 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94호 / 주간 39호

2024. 9. 25. (수)

·발 행 인:이윤선  
·제 작:(주)안건조세정보  
·대표전화:(02) 829-7575  
FAX:(02) 718-8565

## 목 차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제조업 조세감면 적용 위한 위탁제조업의 범위	표지
CEO의 경영 산책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전사적 리스크 관리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무슨 고민할까?)	- 경품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기계장치 일부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 및 회계처리 방법 - 환급처리문의 - 스크랩 거래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과 결제내역 결제일자가 다를 경 우 문의	5 6
눈에 맞는 절세미인	사택을 제공받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비과세소득임	7
매일 절세재무요점	- 상속세 인적공제 개요 - 2024 세법개정안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9 10
직장인Survival	시간대와 설득효과	11
최신 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사망을 원인으로 탈퇴하고 해당 출자지분 을 조합원인 상속인이 승계받는 경우, 상속받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 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 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사전법규재산-543, 2023.12.14) -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상 과세권 없는 원천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법 인세법」 제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12 13
세정뉴스와 해설	작년 '상속세 상위 1%' 199명...1인당 세금 396억원 납부	14
마케팅 Tax consulting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른 미국법인에 양도하면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법인세액에 해 당 안됨	13
회계정보	- 2024년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15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 정환율	4

#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전사적 리스크 관리



이재권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장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CIA

한국윤리경영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현), 서강대 내부감사전문과정 교육운영위원  
서울시립대, 국립 한밭대 겸임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민관협의회 공정신뢰분과위원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RS( Enterprise Risk Services)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보기술연구위원장  
Touche Ross Australia, Melbourne : Advanced Technology Group 근무

## ◆ 배경

최근 발생된 W금융그룹의 부당대출과 금융사고, NH은행의 횡령사고,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의 위메프·티몬 사태,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업체의 화재사고 등은 기업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영의 복합적 리스크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기업, 금융회사, 비영리조직 등이 위와 같은 글로벌 복합위기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사적 차원의 리스크 관리의 구축 운영이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전사적 리스크 관리(Enterprise Risk Management; ERM)란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영자와 전체 조직원이 참여하여 전략 수립을 포함한 업무 전반에 대해 리스크를 확인하여 관리하는 과정’이다. 리스크 관리가 조직 또는 기능이나 구성원의 일부만 참여하여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조직과 임직원 및 모든 직무분야가 참여하는 전사적(全社的) 차원에서 수행한다는 점에서 전사적 리스크 관리(ERM)이라고 한다.

## ◆ 전사적 리스크 관리의 활용

전사적 리스크 관리란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고 보존하는 기반이 된다. 특히 기업의 전략 수립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물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 우리 기업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영전략에 잠재적 리스크는 무엇인가?
-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고객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가?
- 우리 기업의 주요 고객은 재무적으로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가?
- 우리 기업의 공급망(supply chain)은 적시에 예산에 맞추어 공급되고 있는가?
-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에 대응한 전략은 무엇인가?
- 우리 기업의 IT를 비롯한 기술 인프라는 RPA( Robtic Process Automation), AI등을 활용하여 업무수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뒷받침하고 있는가?

- 우리 기업과 협력회사 등에 산재 사고 등이 발생할 리스크에 대한 관리수준은 ?

이는 경영진이 고민하는 질문의 예시이다. 이에 대응하는 것이 전사적 리스크 관리이다.

리스크 관리 사이클의 첫 단추는 리스크 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리스크를 식별하는 데서 출발한다. 조직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 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조직 역량은 최고경영층으로부터 현장 직원에 이르기까지 의사결정의 실행 과정에서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데 저해가 되는 리스크를 인식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조직 상하, 좌우간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효과적으로 가동해야 한다. 리스크 관리의 초점은 미션과 비전으로부터 출발하여 경영전략과 최하위 실무자의 세부 직무 목표에 이르는 전 과정이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은 궁극적으로 조직 가치(value)를 창출하는데 연결되어야 한다.

#### ◆ 전사적 리스크 관리(ERM) 구성 요소

COSO는 2017년 개정된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COSO Enterprise Risk Management Integrating with Strategy and Performance 2017)를 발표하면서 ERM의 구성요소로 다음과 같은 5가지를 들고 있다.

- ① 거버넌스 및 조직 문화(Governance & culture)
- ② 전략 및 목표 설정(Strategy & Objective-Setting)
- ③ 리스크 관리 수행(Performance)
- ④ 재검토 및 조정(Review & Revision)
- ⑤ 정보, 커뮤니케이션, 보고(Information, Communication & Reporting)

CEO를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가 ERM을 강화하고 지휘감독하는 기업 분위기(organization's tone)를 결정한다. 최근 조직 문화의 키워드로 조직윤리 의식 제고와 리스크에 대한 이해가 강조되고 있다. 전략, 목표 설정 및 리스크 관리는 불가분의 관계로서 경영전략과 사업 목표에 맞추어 리스크 성향(리스크 추구(risk aggressive), 리스크 회피(risk averse), 리스크 중립(risk neutral) 등으로 구분)(risk appetite)을 설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수행되어야 한다. 경영활동 수행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와 공유한다. 재검토 및 조정은 리스크 관리의 수행에 따른 필수적인 절차로서 앞 단계의 ERM 요소들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ERM은 필요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하여 공유하고 경영층에 보고되어야 한다.

#### ◆ ERM의 기대 효과

COSO에서 제시하는 리스크 관리(Enterprise Risk Management)의 효과(COSO, Enterprise Risk Management 2017 - Integrating with Strategy and Performance, Executive Summary)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비즈니스 기회의 확장 : 리스크 관리를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opportunity)를 발견할 수 있다.
- ② 파급되는 리스크의 발견 : 다른 사업부문·부서·팀 또는 조직 전체에 파급될 수 있는 리스크를 찾아내어 관리할 수 있다.
- ③ 수익성 제고 : 리스크 관리는 원가절감 및 이익 확대에 기여한다.
- ④ 경영 안정성 확보 : 미래 지향적,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함에 따라 예기치 않은 사고를 줄이고 경영 변동성율이 완화시킨다.
- ⑤ 자원배분의 효율성 : 리스크 우선순위를 고려한 자원(자금, 인력, 시간 등) 배분으로 자원 사용의 효율성이 제고된다.
- ⑥ 경영의 지속가능성 확보 : 리스크 관리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하에서 조직의 복원력(resilience)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기업에 실무적 함의

최근과 같이 국내외 경제환경이 불확실하고 예기치 않은 리스크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영 환경에서는 전사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한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기업의 생존을 위하여 비재무 요소인 지속가능경영 리스크를 포함한 전사적 리스크 관리에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사회는 기업의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매년 검토하고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글로벌 경영 환경에 리스크가 높은 우리기업과 금융회사 등은 지속적인 조직의 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9월 9일 (월)	9월 10일 (화)	9월 11일 (수)	9월 12일 (목)	9월 13일 (금)	9월 19일 (목)					
미	달	러	(USD)	1330.40	1339.50	1344.30	1340.30	1339.60	1331.00					
일	본	엔	(JPY)	935.29	935.83	943.87	940.59	945.74	934.46					
영	국	파	운	드	(GBP)	1747.55	1750.93	1758.61	1748.09	1758.56	1758.32			
캐	나	다	달	러	(CAD)	980.72	987.80	987.69	987.29	986.63	978.28			
홍	콩	달	러	(HKD)	170.65	171.79	172.40	171.89	171.68	170.82				
중	국	원	(CNH)	187.74	188.51	188.69	188.25	187.96	187.16					
유	로	화	(EUR)	1475.21	1478.47	1481.49	1476.01	1483.54	1479.61					
호	주	달	러	(AUD)	887.04	892.37	894.56	894.92	901.08	900.62				
싱	가	폴	달	러	(SGD)	1020.87	1025.97	1030.51	1027.84	1029.23	1027.88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307.22	306.42	309.57	309.54	309.07	313.62

### 경품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여부

**Q** 회사가 창립기념일 이벤트로 회사 임직원들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때 경품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A** 사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품 등은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업무관련성이 있기때문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계장치 일부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 및 회계처리 방법

**Q** 사내 일부설비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계약서 1월~12월 1년내 정산하기로 약정 했습니다. 매월10,000,000원씩 정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매출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하는데 발행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를 12회 분할로 해도 상관없는지요? 1개의 유형자산을 12회 걸쳐 매각대금 처리시, 회계처리시 일시 대체가 아닌 매월 입금 시점에 매출 계산서 별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A** 재화는 소유권 이전시점이 공급시기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됩니다. 다만 인도일부터 최종할부금을 지급받는 날이 1년이상인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이면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됩니다. 귀사의 경우 1년내이므로 장기할부판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시설을 이전하는 시점에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하며 매출인식하여야 합니다.

## 환급처리문의

- Q**
- 당사는 교육업체로 학생을 대상으로 1개월 수강권(약 7만원)을 판매하고 있음
  - 1개월 수강후 일정요건(출석, 카페 후기작성 등)을 갖추면 수강료를 전액 환불하고 있음.
  - 현재 위의 요건을 갖추고 환불할때 학부모의 주민번호를 받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한두명도 아니고 몇십 몇백명으로부터 일일이 주민번호를 받기가 힘들고, 주민번호 제출도 거부하는 고객이 있어서 처리가 곤란한데
  - 위와 같이 처리하는게 적당한지요? 혹 다른 처리 방법인 있을까요?
  - 추가로 위와 같이 처리하며 환급비용을 광고비로 처리하고 주민번호 제출 거부자는 기존 매출에서 마이너스로 처리하는데 괜찮을까요?

**A**

귀사의 의견대로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요건 충족시 환급되는 금액은 일종의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며, 환불시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주민번호 제출 거부자에 대해서는 매출취소처리하는 것은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스크랩거래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결제내역 결제일자가 다를 경우 문의

- Q**
- 당사는 스크랩거래를 했고 스크랩매출자입니다.
- 8월 30일 공급가액 11,056,850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스크랩매입자측에서 부가세를 포함한 12,162,534원을 입금하여 9월 11일에 송금하여 부가세는 국고에 귀속되고 공급가액만 입금된 상황입니다.
- 그런데 매입자측에서 송금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8월 30일로 안하고 9월 11일로 하는 바람에 당사에서 3분기 기납부세액에서 조회가 안되고 4분기에서 조회가 되는 상황입니다.
- 이런 경우, 스크랩거래에 대한 가산세가 매출자, 매입자 가산세가 발생하는 상황인지요?

**A**

공급받은 때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때에 전용계좌 등에 입금하여야 하는데, 해당 시점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자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귀사의 경우 매입자측에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수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귀사는 별도의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사택을 제공받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익은 비과세소득임

상담실 백종훈 차장

많은 기업들이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택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택의 운영에 따른 회사의 세무상 처리방법과 사택제공이익의 근로소득 처분여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사택제공은 부당행위 적용되지 않으며, 임직원들도 사택제공이익에 대해 비과세 적용됨**

회사가 임직원에게 금전 등의 자산을 무상이나 시가보다 낮은 이율 또는 요율로 대여하는 경우는 부당행위에 해당되므로, 현행 세법은 시가와 차액에 대해 회사는 익금산입 반영하고 임직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제공하는 사택의 경우에는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여해도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도록 예외규정 하고 있어,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요율 등으로 제공하더라도 해당 차액을 익금산입 반영하지 않는다.

또한 소득세법에서도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의 이익은 비과세 소득으로 반영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별도 규정하고 있다.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❶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

다.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하지만 사택의 이용대가인 임차료 이외에 사택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사적인 비용인 가스료·수도요금·전기료 등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가스료·수도요금 등은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즉, 사택 이용대가에 한해 근로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지, 사택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사적인 비용까지 비과세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법인46012-3960(1995.10.24.)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등에 근무하게 되어 사택 또는 합숙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사가 사택대신 지원해주는 주택 임차보증금도 비과세에 해당됨

기재부는 회사가 내부지침에 따라 종업원에게 사택이 없는 지역에 대해 사택대신 사택의 임차금을 무상 대여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사택 대여와 동일하다는 대법원 판례(2004두7993, 2006.5.11)와의 과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사택의 임차금을 무상 대여하는 경우에도 사택제공과 동일하게 세제지원이 되도록 유권해석을 하였다.

즉, 사택 보증금을 지급한 것은 사택의 제공에 같음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택의 제공과 동일하므로 부당지원 아니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미 사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사택이 없는 지역에 대해 사택대신 사택의 임차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고, 종업원에게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사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회사가 지원하는 임차금 등은 부당행위에 해당되며 또한 근로소득으로 반영된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 상속세 인적공제 개요

		1997년	현행
기초 공제		2억원	
인적공제	자녀·연로자	1인당 3000만원	1인당 5000만원 → 5억원(개정)
	미성년자	20세까지 연수×500만원	19세까지 연수×1000만원
	장애인	75세까지 연수×500만원	기대여명 연수×1000만원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법정상속지분 내 실제 상속분(5~30억원)	



###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 조정

과세표준	1억원 ↓	5억원 ↓	10억원 ↓	30억원 ↓	30억원 ↑
현재 세율	10%	20%	30%	40%	50%

과세표준	2억원 ↓	5억원 ↓	10억원 ↓	30억원 ↑
개정 세율	10%	20%	30%	40%



## 2024 세법개정안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자녀 수	현행	개정
1명	15만원	25만원
2명	35만원	55만원
3명 이상	35만원+30만원 ×(자녀수 - 2)	55만원+40만원 ×(자녀수 - 2)



## 금투세 보완입법 관련 내용

기본공제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손실 이월공제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ISA연납입금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
과세 범위	수익전액 비과세 및 해외주식 투자허용
반기별 원천징수 방식	연 1회 확정신고
연말정산	배우자 등 부양가족 기본공제시 금투소득 배제
건보료	건보료 산정기준 소득액에서 금투소득 제외



## 시간대와 설득효과

우리는 그 날의 시간대에 따라서도 기분이나 분위기가 바뀐다. 대체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소 멍한 상태이고 점심때쯤 돼야 머리가 활성화된다. 그리고 점심식사 후에는 조금 졸음이 오고 저녁이 되어 피곤해지면 집중력이 떨어진다.

심리학자 스콜닉의 논문에 의하면, 똑같은 의뢰도 시간대에 따라 승낙률에 차이가 있으며, 대체로 이른아침이나 밤에는 설득하기 어렵다고 한다.

오전 중에는 누구나 심리적으로 매우 긴장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의 주장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고 머릿속에서 반론도 쉽게 떠오르지 모른다.

반면에 점심식사를 마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는 대체로 긴장이 풀려 있는데, 이 타이밍을 이용하면 가볍게 허락할 확률이 높아진다.

밤이 되면 다시 기분이 가라앉기 때문에 이때 또한 설득이 어려워진다.

설득에 실패하는 원인 중 하나는 상대의 '심리적 긴장도'를 파악하지 못해서다. 이 심리적 긴장도는 아침과 저녁에 높고 낮에 낮아지는 U자형 곡선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 최신판례예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사망을 원인으로 탈퇴하고 해당 출자지분을 조합원인 상속인이 승계받는 경우, 상속받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사전법규재산-543, 2023.12.14

## Ⅰ 질 의

-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사망을 원인으로 탈퇴하고 해당 출자지분을 조합원인 직계비속이 승계하는 경우, 상속받는 출자지분을 보충적 평가방법(상증법 §63, 상증령 §54)이 아닌 조합법인 탈퇴시 반환받을 출자지분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 Ⅰ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사망을 원인으로 탈퇴하고 해당 출자지분을 조합원인 상속인이 승계받는 경우, 상속받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종부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9243호, 2018.10.23.)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서면법규재산-4854, 2024.01.24

## Ⅰ 질 의

- ‘18.9.13.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의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고 ‘18.9.14. 이후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 종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43호) 부칙 제2조 제2항 적용 여부

## Ⅰ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 2024.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 2024.1.22.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6, 2020.4.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6, 2020.4.6.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하는 것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 개인사업자가 전환법인의 지점이 되는 경우에도 법인전체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임

사전법규법인-820, 2023.12.11

## Ⅰ 질 의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 개인사업자와 제출대상인 아닌 사업자가 사업의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로서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 개인사업자가 전환 법인의 지점이 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방법

1안) 법인전체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임

2안) 해당 지점\*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임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전 환된 지점

## 회 신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 인대상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그 외의 사업자가 사업의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 라 법인(이하 ‘전환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해 당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전환법인의 지점이 되고, 해당 전환법인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 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 를 받지 않는 경우

해당 전환법인은 「법인세법」제60조의2제1항제2 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Marketing Tax consulting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른 미국법인에 양도하면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법인세액에 해당 안됨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상 과세권 없는 원천지 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 1항에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 질 의

- 질의법인은 미국 소재 자회사(◆◆◆◆, ‘미국자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

- 질의법인은 '23.1.1. 보유 중인 미국자회사 지분 전 부를 미국 내 관계회사(◎◎◎◎, ‘미국관계사’) 에 양도(‘쟁점거래’)하고,

- 그 양도대가 ●●●달러를 모두 현금으로 수 령하면서,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에 따라 계산된 배당소득 ○○○ 달러에 대하여 10%(한 미조세조약상 제한세 율) ○○달러(‘쟁점세액’)를 미국 현지에서 납 부(원천징수)

- 쟁점거래 이후 미국자회사는 미국관계사에 합병 되거나 혹은 미국 내국세법에 따라 투시과세단체 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택할 예정

질의

- 법인세법상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소득 이 미국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취급되어 관련 세액 (10% 제한세율 적용)이 원천징수된 경우,
-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위 세액이 법인세법상 외 국납부세액공제 및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지 여 부

## 회 신

내국법인이 미국 소재 법인의 발행주식을 다른 미국 법인에 양도하여 얻은 소득(‘쟁점소득’)은 한·미조세조약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쟁점소득 중 일부가 미국 세법상 배 당소득으로 취급되어 관련 세액(‘쟁점세액’)이 미 국에서 원천징수된 경우, 쟁점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 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작년 '상속세 상위 1%' 199명...1인당 세금 396억원 납부

지난해 상속세 납부자 중 '상위 1%'가 낸 세금이 1인당 396억원에 달했으며, 이들 상위 1%의 증여세 납부액은 3년 연속 증가세가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를 낸 납세자는 1만9천944명이었다. 1만5천760명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26.5% 늘어난 숫자다.

총상속재산 가액은 51조8천564억원, 결정세액은 12조2천901억원이었으며, 결정 세액을 인원으로 나눈 1인당 결정 세액은 6억원이었다.

1인당 결정 상속세액은 2019년 3억원을 시작으로 2020년(4억원), 2021년(4억원), 2022년(12억원)으로 매년 증가·보합하다 지난해 하락 전환했다. 상속재산 가액 상위 1%인 199명이 납부한 세액은 7조8천835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결정 세액은 396억원이었다. 167억원이었던 2021년보다는 늘었지만, 1천6억원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지난해 증여세를 낸 납세자는 20만8천508명이었다. 총 증여재산 가액은 35조1천903억원, 결정세액은 6조9천989억원이었다. 1인당 납부한 증여세는 3천만원가량이었다. 2021년, 2022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증여재산 가액 기준 상위 1%인 2천85명이 납부한 세금은 3조759억원, 1인당 결정세액은 15억원이었다. 2021년 12억원, 2022년 14억원에 이어 3년 연속 상승세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 비정기 세무조사 가동... 연초 세무조사 축소기조 어렵다

국세청이 올해 연간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1만3973건) 수준으로 유지한다. 대내외 경제여건, 인력 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간 건수를 유연하게 운영한다.

단, 인력에 한계가 있고, 올해 남은 시간이 석 달 남짓 정도밖에 안 돼 세무조사가 늘어나더라도 1만4000건 안팎에서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영세납세자는 간편조사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해 부담을 완화하고, 간편조사 건수 축소를 확보한 자원을 거둘

수 있는 곳으로 돌린다.

필요한 경우 비정기 세무조사를 선정하고, 장부 일시보관을 실시하는 등 악의적 탈세에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한다.

유튜버 광고·후원 수익 누락 등 온라인 플랫폼 탈세, 해외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변칙 발행·거래 등 신종 분야 감증을 강화한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PG) 등 과세인프라 우회거래, 기획부동산 등 이상거래, 상가 거래 시 영업권(권리금) 무신고, 지방세 대납한 법무사의 캐시백 수입 누락 등 관행적 신고 누락을 집중 점검한다.

다국적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지연 등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중요한 자료)을 명확화한다. 포상금 예산 자체는 늘렸는데, 대대적인 세수팽크로 정부 내 현금이 없어서 포상금 지급이 쉽지 않다.

온라인 탈세제보자에게 처리상황·담당자 등 실시간 제공하고, 모바일 접수 시 동영상·문서 첨부 기능을 추가한다.

디지털 경제 확산, 탈세 지능화에 대응 가능한 조사기법 및 데이터 수집·분석시스템 고도화로 과세사각지대를 축소한다.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특정 지갑의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복사용지의 작성시기 감정법, 링크 염료성분 분석법 등 포렌식 기술을 강화한다.

외환분석시스템을 개선, 외환송금·수출입통관 등 빅데이터 분석으로 거래흐름을 시각화한다.

고액 상속제납에 대해선 고가 외제차 리스 보증금, 허위 부동산 근저당, 산업재산권·특허권, 해외재산 내역, 가상자산 거래이력 등 외부 과세자료를 연계 분석한다.

채납자 생활실태 확인, 주변인·이해관계자 탐문, 주소지·사업장 수색 등 현장추적 조사 강도를 높이고,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채납처분 면탈법 고발 등에 적극 나선다.

채납자 유형분류, 차량압류·해제 전자촉탁 등 업무지원 시스템을 확충하고, 법원공탁금채권(법원), 전기·수도·가스(국토부), 지역주택임주권(한국부동산원) 등 다양한 재산수집자료를 전산에 구축한다.

# 2024년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 I 개 요

□ 금융감독원은 지난 '11년 이후 기업과 감사인이 원칙 중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대표적인 심사·감리 지적사례들을 꾸준히 공개하여 왔습니다.

□ 특히, 지난 5월에는 최근 4년간('20~'23년) 공개한 주요 지적 사례를 쟁점 분야별로 구분, 책자로 발간하여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하였으며,

\*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 올해부터는 동 지적사례의 공개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로 단축\*하는 등 보다 적시에 기업회계 및 감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24.5월) 2023년 지적사례 공개, ('24.9월) 2024년 상반기 지적사례 공개

## 2 심사감리 지적사례 공개 현황

□ 금번 '24년 상반기 지적사례 13건을 발표함으로써 K-IFRS 시행 이후 14년간('11년~'24.상반기) 총 168건의 사례를 공개하였습니다.

□ 금번에 공개하는 지적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투자주식(종속·관계기업) 관련 4건으로,

○ 이외 매출 등 허위계상 2건, 재고·유형자산 2건 및 횡령 은폐를 위한 매출채권 등 기타 자산 허위 계상 2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lt;심사·감리 지적사례 공개 현황&gt;

(단위 : 건)

공개 시기		'24.9월	'24.5월	'23.11월	'22.6월	'21.12월	'21.6월	'20.8월	'19.12월	합계
공개 대상연도		'24.상	'23년	'22년	'21년	'20년	'18년~ '19년	'15년~ '17년	'11년~ '14년	'11년~ '24.상
지 적 유 형	① 매출·매출원가	2	6	3	4	4	5	12	4	40
	② 투자주식	4	-	4	3	4	5	6	4	30
	③ 재고·유형자산	2	2	3	3	-	1	5	7	23
	④ 기타자산·부채	4	4	5	2	8	2	5	7	37
	⑤ 주식 미기재 등	1	2	3	3	11	2	9	7	38
지적사례 수(합계)		13	14	18	15	27	15	37	29	168

## 3

##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 [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

- (사실관계) A사(이하 '회사')는 코넥스 상장기업으로 코스닥 이전상장을 추진하던 중 정부의 방역완화 방침 등으로 P제품(코로나 특수상품)의 판매가 급감하자 실적 조작의 유인이 발생하였음
- 이에 따라 회사는 거래처와 공모하여 판매가 부진한 P제품이 대량 해외로 수출되는 것으로 위장하고 이를 단순 분리하여 다시 들여올 것을 기획하였음
  - 즉, 회사는 홍콩 기존 거래처(B사)와 공모하여 B사로부터 소개받은 업체(C사\*)에 P제품을 수출하고 B사로부터 다른 용도의 새로운 원재료(P-1, P-2)를 매입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였음
    - \* B사와 동일 주소지를 사용하고 실제 영업활동이 없는 특수관계 업체로 추정
- (지적내용) 회사는 매출 및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원재료를 신규로 매입한 것처럼 가공의 외관을 형성하여 허위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계상하였음
- 또한, 감사인에게 허위로 작성된 공급계약서 및 금융거래 증빙 등을 제출하여 외부감사를 방해하였음
- (시사점) 회사가 이전상장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감사인은 회사의 매출 및 당기순이익 조작 등 분식 유인에 유의하고,

- 실적이 부진하던 제품의 대량 판매가 발생하고 유사한 시기에 원재료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이상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거래처와의 공모를 통한 가공매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 회사가 제시한 증빙 이외에도 수출입 품목의 세부정보를 확인하고 대금지급 조건\* 및 수출입 상대방의 관계(동일 주소지) 등을 대사하는 등 보다 강화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 \* 특정 원재료 매입에 한하여 대금을 100% 선지급하는 등 비경상적 결제조건이 발견된 경우 배경 확인 필요

###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 (사실관계) D사(이하 ‘회사’)는 광학필터 등을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업체로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직면하였음
  - 이에 따라 회사는 해외 자회사 등과의 자금순환 거래를 통해 마치 장기 미회수 매출 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대손충당금을 환입할 것을 기획하였음
  - 즉, 회사는 보유자금을 활용하여 해외 자회사에 대하여 추가 출자(송금)한 직후 이를 특정 거래처(E사\*)를 통해 다시 회사로 회수하는 과정에서,
    - \* 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채권·채무를 모두 보유
    - 해외 자회사 → E사 → 회사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장기 미회수 채권이 회수되는 외관을 형성한 결과, 회사는 E사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100%)을 환입하였음
  - 다만, 자금순환 거래에 활용된 해외 자회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회사가 이미 출자지분 전액을 손상 처리하여 추가 출자지분 또한 손상차손 인식이 불가피함에도, 회사는 자금순환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추가 출자지분에 대하여 별도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음
- 
- (지적내용) 회사의 해외 자회사들은 지속적으로 완전 자본잠식을 기록하는 등 손상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고, 자금순환을 통해 현금창출능력 등 경제적 실질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 회사는 영업손실 기록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회피를 위해 종속기업투자주식(추가 출자지분)에 대하여 손상차손 인식을 누락하였음
- 
- (시사점)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투자지분이 이미 전액 손상처리된 자회사에 대하여 회사의 추가 출자가 이루어진 경우 감사인은 자금순환, 실적개선 등 기타 거래 동기에 유의하고,
    - 회사의 출자 배경 및 자회사의 손상사유 해소 여부 등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



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함

###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허위계상]

- ☐ (사실관계) F사(이하 ‘회사’)는 통신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수익성 악화 따른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자, 실적 조작의 유인이 발생하였음
  - 제품 판매시 판매대금은 매출(수익)로, 해당 제품원가는 매출원가(비용)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목표실적 달성을 위해 수익을 인식하면서 비용을 인식하지 않았음
    - 해당 제품은 이미 판매되어 실물이 없음에도 마치 장부상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처리되어 추후 재고자산 실사시 적발될 우려가 있자, 회사는 동 제품 장부가액을 허위 유형자산(공구·기구)으로 대체하였음
- ☐ (지적내용) 회사는 재고자산 판매시 관련 매출원가를 인식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고 허위의 유형자산 등으로 대체하여 해당 연도의 비용을 과소 계상하였음
- ☐ (시사점) 감사인은 타처보관재고자산 등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해 외부조회를 실시하는 경우 단순히 조회서의 회수여부 뿐 아니라 회신내역을 충분히 검토하여 감사증거로 활용하고,
  - 특정 자산의 타계정대체가 발생한 경우, 비용인식 이연 등 거래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회사의 소명을 요청하고 회계 정책과 대사는 등 보다 강화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 4

### 향후 계획

- ☐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에게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 ☐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하여 지속적으로 Database를 축적해 나가겠습니다.

#### 붙임1

#### 2024년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공개 목록

##### ① 매출·매출원가(2건)

1. FSS/2409-01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2. FSS/2409-02 매출 조기인식을 통한 매출액 과대계상 등

②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4건)

1. FSS/2409-03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2. FSS/2409-04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영업권 손상차손 미인식
3. FSS/2409-05 종속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
4. FSS/2409-06 관계기업투자주식 추가 취득시 취득원가 오류

③ 재고·유형자산(2건)

1. FSS/2409-07 재고자산 허위계상 및 감사인의 독립성 의무 위반
2. FSS/2509-08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허위계상

③ 기타 자산·부채(4건)

1. FSS/2409-09 퇴직급여충당부채 과대계상
2. FSS/2409-10 횡령 은폐를 위한 매출채권 허위계상
3. FSS/2409-11 무형자산(개발비) 과대계상
4. FSS/2409-12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오류

④ 주식미기재 등(1건)

1. FSS/2409-13 특수관계자 여부 및 거래내역 주식 미기재

**FSS/2409-01 :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 2021.4.1.~2023.3.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코넥스 상장기업으로 코스닥 이전상장을 추진하던 중 정부의 방역 완화 방침으로 P제품(코로나 관련 특수상품)의 판매가 급감하여 재고 물량이 과다하게 쌓이자, 실적 조작의 유인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회사는 홍콩에 소재한 기존 거래업체에 P제품을 보낸 후 단순 분리하여 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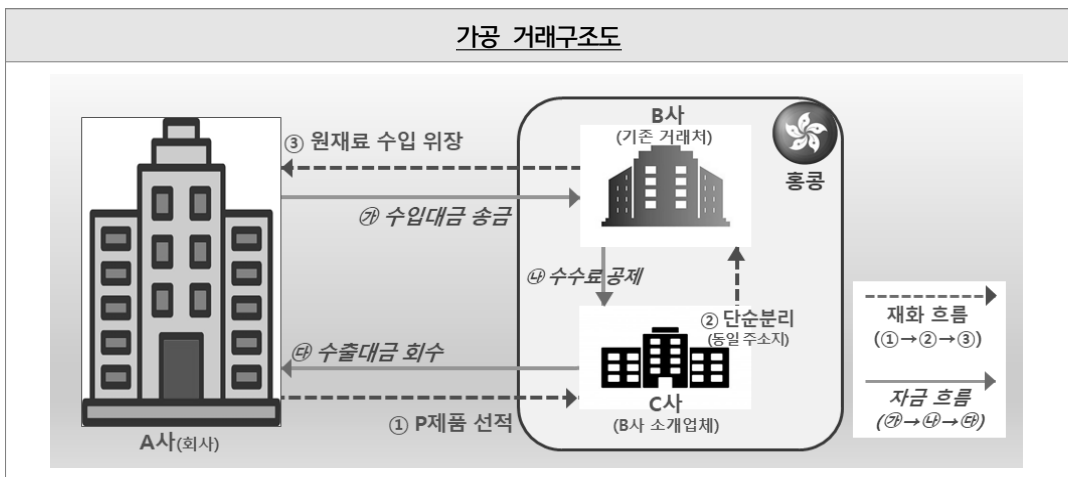
들어왔음에도 마치 신규 거래처에 정상적으로 P제품을 수출하고 이와는 별도로 새로운 원재료를 수입한 것처럼 가공의 외관을 형성할 것을 계획하였다.

즉, 회사는 홍콩에 소재한 기존 주력 거래처(B사)와 공모하여 B사로부터 소개받은 업체(C사\*)에 P제품을 수출하고, B사로부터 다른 용도의 새로운 원재료(P-1, P-2)를 매입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

\* B사와 동일 주소를 사용하고 실제 영업활동이 없는 특수관계 업체로 추정

수출입대금이 원활하게 융통되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B사에 원재료 수입대금을 先 지급하고 동 자금을 넘겨받은 C사로부터 명목상 P제품의 수출대금\*을 즉시 회수하였다.

\* 사전에 협의한 수수료(1%) 차감



##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매출 및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원재료를 신규로 매입한 것처럼 가공의 외관을 형성하여 허위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계상하였다. 또한, 감사인에게 허위로 작성된 공급계약서, 금융거래 증빙 및 재고수불부 등을 제출하여 외부감사를 방해하였다.

##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15에 따르면 수익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31에 따르면 재화를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한다.

##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

15 및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문단9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기업이 생산한 정보를 이용할 때 해당 정보가 감사인의 목적을 위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 ② 회사가 코스닥 이전상장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진정국면에서 해외 신규업체에 대한 비정상적인 대량거래가 발생한 상황에서 감사인은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충분하고 적절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수출신고서류 및 입금증빙만을 확인하였을 뿐 해외매출 선적서류 등을 통한 수출입 품목의 세부정보 비교, 대금지급 조건 및 수출입 상대방의 관계 확인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 5. 시사점

상장예정법인의 경우 원활한 상장 심사 및 상장시 고평가를 받기 위해 매출 및 당기순이익 조작의 분식회계 유인이 항상 존재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본 사례와 같이 거래처와 공모를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공매출은 형식적인 서류들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는 점에서 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한 증빙이나 진술에 의존하는 대신, 사전 협의자료 등을 통해 거래全过程를 정밀하게 추적하고 다른 증빙 서류와의 대사를 통해 보다 높은 증거력을 확보하는 등 강화된 감사 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 FSS/2409-02 : 종속회사의 밀어내기 매출을 통한 매출(연결) 허위 계상 등

-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 2017.1.1.~2020.12.31.

## 1. 회사의 회계처리

- ① A사(이하 ‘회사’)는 정보보호체계 구축 및 콘텐츠 보안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 업체로, 회사의 대표이사 및 재무담당임원은 종속회사 B사(이하 ‘종속회사’)의 대표이사 및 재무담당임원 직을 겸직함에 따라 종속회사의 IPO를 통한 회사의 자본이득 실현을 위해 종속회사에 일명 ‘밀어내기 매출’을 지시하였다.

그동안 종속회사는 영업인력이 부족한 회사의 영업력 확대를 위해 기술지원 등이 가능한 업체 중 회사가 선정한 업체\*(이하 ‘협력업체’)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여 왔으며, 협력업체를 통한 제품 판매시 협력업체로부터 최종 소비자와의 계약내용을 첨부한 발주



서(계약서 첨부)를 제출받아 매출을 인식하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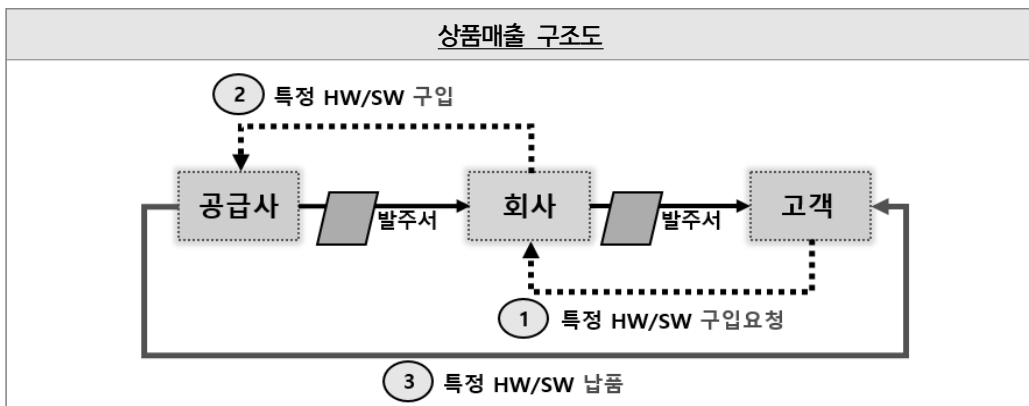
그러나 종속회사의 영업부서는 회사로부터 ‘밀어내기 매출’을 지시받은 이후 협력업체와 담합하여 최종 소비자가 없음에도 연말에 집중적으로 허위의 발주서를 제출받아 세 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밀어내기 매출’을 실행하여 매출을 과대 계상(x1~x3년)하였다.

이러한 ‘밀어내기 매출’은 영업부서에서 협력업체가 실제 계약한 건을 과거 밀어내기 매출과 상계하는 방법 등으로 정리하고, 이를 영업본부장 및 대표이사 앞 보고하였다.

- ② 또한, 회사는 고객사가 회사 제품 사용에 필요한 ‘상품’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구입하여 제공하면서 상품매출로 회계처리하였다.

상품매출 회계처리 과정에서 회사는 약속이행의 주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최종소비자가 상품 구입을 취소하는 경우 상품의 공급처로 반품하는 것이 가능한 등 재고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며, 가격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고도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품매출’을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인식하였다.(x1~x4년)

\* 상품종류 등은 고객사가 결정하고, 계약서 체결 없이 발주서만으로 상품매출이 이루어지며, 상품매출 취소시 회사는 공급사와의 공급약정을 취소



##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밀어내기 매출’을 통해 종속회사 재무제표 상 매출을 허위 계상하고, 동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연결당기순이익 및 연결자기자본을 과대·과소계상하였고, 재고위험 등을 부담하지 않는 상품매출과 매출원가를 총액으로 인식함으로써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 상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였다.

##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의 문단 19 및 B86에 따르면 지배기업은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한 거래와 그 밖의 사건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고, 지배기업과 종속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을 같

은 항목별로 합산해야 하며,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한 비슷한 거래와 사건에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일치하도록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에 문단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수익)에 B15에 따르면, 회사가 본인으로서 거래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속을 이행할 주된 책임이 이 기업에 있고, 정해진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게 이전되기 전이나, 고객에게 통제가 이전된 후에 재고위험이 이 기업에 있어야 하며, 정해진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할 재량이 기업에 있어야 한다.

####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① (종속회사의 제품매출 과대계상) x1년 감사인은 그룹 재무제표 감사인으로서 요구되는 합리적인 수준의 업무와 종속회사의 부문감사인과 의사소통을 수행한 점이 인정되어 지적하지 아니하였다. x2년부터 x4년의 경우 동일 감사인이 회사와 종속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하였는데, 회사가 협력업체들과 공모하여 매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였는 등 외관상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함에 따라 “다른 감사절차에 의하여도 위법가능성을 전혀 의심할 수 없거나, 회사의 진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위법사실을 알 수 없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지적하지 아니하였다.
- ② (회사의 상품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감사인은 고객이 요청하는 상품의 종류를 고객이 직접 결정한다는 점, 상품매출이 취소되는 경우 회사가 공급사와의 공급약정을 취소한다는 점 등을 파악하지 못하였는 등 상품매출의 본인-대리인 여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 5. 시사점

감사인은 IT 솔루션 판매 특유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상장예정계획 등 회사의 회계부정 및 오류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회사가 제시한 증빙이나 진술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심도 있는 분석적 검토 등을 통해 이상 항목의 유무를 확인하는 등 강화된 감사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특히, 협력업체를 통한 매출의 경우 일반적인 감사증거에 추가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공급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감사증거를 확보하고, 상품매출 관련하여 회사가 본인으로서 거래를 수행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서상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계약서 및 거래 실질 등을 파악하여 검토하는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FSS/2409-03 :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 쟁점 분야: 종속기업투자주식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 2018.1.1.~20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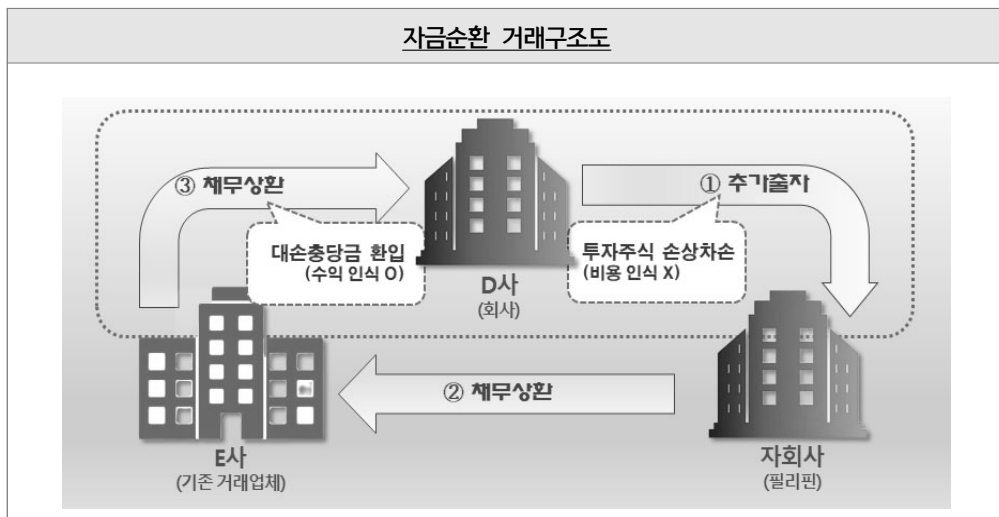
A사(이하 ‘회사’)는 광학필터 등을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업체로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함에 따라 추가 영업손실 기록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상황에 놓이자, 해외 자회사 등과의 ‘자금순환 거래’를 통해 마치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대손충당금을 환입할 것을 기획하였다.

이에 따라 회사는 x3년중 해외 자회사로 일정 자금을 송금한 직후 거래처 B사\*(이하 ‘거래처’) 등을 거쳐 다시 회사로 유입시켰다.

\* 회사(자회사 포함)와 채권·채무를 모두 보유

동 자금순환 거래의 대상은 회사가 이미 손상차손을 인식한 해외 자회사임에도, 회사는 자금순환 거래의 은폐 등을 위해 x3년 및 x4년 별도재무제표 작성시 자회사에 대한 유상증자를 가장하여 종속기업투자주식(원가법)으로 처리하고 동 자금에 대해 별도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였다.

즉, 회사는 영업이익 확보를 위한 자금순환 거래를 위해 손상 사유가 지속되고 있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은 인식하지 않은 반면, 대손충당금 환입을 통한 영업수익 인식으로 손익을 조정하였다.



##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4년 연속 영업손실 기록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회피를 위해 이미 손상 사유가 발생한 종속기업에 추가로 출자하고 동 출자자금으로 종속회사 등이 회사에 대한 장기미회수 매출채권을 상환토록 하여 영업수익(대손충당금 환입)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자금순환 거래를 실행하였다.

회사가 출자한 종속기업들은 x1년 이후 지속적으로 완전 자본잠식을 기록하고 있는 등 기인식 손상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금순환 거래로 인해 종속기업들의 생산능력·현금창출능력 등 경제적 실질이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회사는 x3년 및 x4년 재무제표 작성시 동 자회사에 대한 추가 출자지분인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하였다.

##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의 문단 8 및 12에 따르면 자산의 사용 범위나 사용 방법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일어났거나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손상 징후를 검토하여야 하며, 현금흐름은 경영진이 승인한 최근 재무예산 예측에 기초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의 문단 18 및 31에 따르면 회수가능액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자산의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정의하며, 자산의 사용가치를 추정할 때는 다음의 단계를 모두 거치는 바, 자산의 계속 사용과 최종 처분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유입과 미래현금유출을 추정하여야 한다.
-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의 문단 33에 따르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한다. 해당 감소금액은 손상차손이다.

##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 15 및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문단6에 따라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직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감사인은 x3년 및 x4년 회사의 종속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외 자회사 폐쇄·축소 계획 확인 등을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았고 완전자본잠식으로 투자지분이 이미 전액 손상되어 있는 자회사에 대한 손상사유 해소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미 실시하였다.



## 5. 시사점

감사인은 회사가 종속기업이나 관계기업에 유상증자를 실행하는 경우, 자금순환 등 다른 동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정과목에 따른 일반적인 감사절차 이외에 회사의 거래 동기, 거래 실질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회사의 거래 동기에 유의적인 감사 위험이 존재한다고 평가되는 경우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일반적인 감사절차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 입증 등을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 FSS/2409-04 :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영업권 손상차손 미인식

- 쟁점 분야: 종속기업투자주식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 2019.1.1.~2019.12.31.

##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의료용기기를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업체로 사업 다각화 목적으로 x3년중 미국 소재 B사(이하 ‘종속회사’)의 지분을 취득하여 별도재무제표상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계상하여 원가법을 적용하고 이전 대가와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의 차이를 연결재무제표상 영업권으로 인식하였다. 회사는 x6년 종속회사와 제조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종속회사가 제조·판매하여 온 제품을 직접 생산하기 시작함에 따라 x6년 이후 종속회사의 매출 구성은 회사에 대한 기술지원 용역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후 종속회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회사는 종속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x9년중 출자전환하였으며, 출자전환 후 추가적인 자금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종속회사의 청산을 결의(x9년)하였다.

회사는 x9년 재무제표 작성시 종속회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로서 청산 결의되었을 뿐 아니라 x9년 4분기 이후로는 회사에 대한 기술지원 용역이 종료되면서 사실상 매출이 전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손상징후가 없다고 판단하고 회수가능액에 대한 합리적 추정 없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였다.

##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별도재무제표상 원가법을 적용한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연결재무제표상 관련 영업권에 대하여 손상징후가 있음에도 손상평가를 소홀히 하여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관련 영업

권을 과대계상하였다.

###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문단 8에 따르면,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 자산은 손상된 것이며, 동 기준서 문단 12~14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몇 가지 징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징후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있으면 정식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야 한다. 또한, 동 기준서 문단 59에 따르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해야 한다.

###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및 500(감사증거)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게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감사인은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영업권의 손상징후를 인식하였음에도, 종속회사 제품 재고가 존재하며 지속적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회사의 설명만을 신뢰하여 회수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추정 없이 손상차손을 계상하지 않은 회사의 회계처리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 5. 시사점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원가법을 적용할 경우 감사인은 매 보고기간마다 기업회계기준서상 손상징후가 발생하였는지를 자세히 살펴야 하고, 질문만으로는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제공되지 않음에 유의하며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중요한 주장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FSS/2409-05 : 종속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

- 쟁점 분야: 종속기업투자주식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 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 2018.1.1.~20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x1년 B사(이하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여 별도재무제표 작성시 지분법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회사는 x4년중 종속회사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회사의 유효지분율이 감소(종속회사에 대한 지배력과는 무관)하였으나, 유상증자 대금 유입으로 종속회사에 대한 순자산 지분 평가액이 크게 증가한 결과 지분변동 차액이 발생하였다.

이후 x7년중 종속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회사의 유효지분율이 변동(종속회사에 대한 지배력과는 무관)하였으나, 자기주식 처분 대금 유입으로 종속회사에 대한 순자산 지분 평가액이 크게 증가하여 지분변동 차액이 재차 발생하였다.

회사는 상기 유상증자 미참여(x4년중) 및 종속회사의 자기주식 처분(x7년중) 등에 따른 지분변동 차액을 주주간 자본 거래로 판단하여 별도 재무제표 작성시 당기순이익이 아닌 지분법자본변동으로 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별도재무제표는 연결실체의 투자성도가 아닌 개별기업의 투자성도에 초점을 두고 있고, 투자자의 유효지분율 하락은 투자지분 처분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유효지분 하락에 따른 투자차액은 당기순이익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이를 지분법자본변동으로 인식함에 따라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 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문단BC10에 따르면, 비록 지분법이 연결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유사한 당기순이익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더라도, IASB는 그러한 정보가 투자자의 연결 또는 개별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별도재무제표의 이용자에게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하였다. 별도재무제표는 투자자산으로서 자산의 성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25에 따르면, 관계기

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그 투자자산이 각각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로 계속 분류된다면, 기업은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 4. 시사점

회사는 종속회사의 지분 거래로 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력과는 무관하게 유효지분율이 감소함에 따라 지분변동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는 투자지분 처분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고 별도재무제표가 투자자산으로서 자산의 성과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지분변동 차액을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는 별도재무제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 FSS/2409-06 : 관계기업투자주식 추가 취득시 취득원가 오류

- 쟁점 분야: 관계기업투자주식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 2018.1.1.~2021.12.31.

####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x1년중 관계회사인 B사(이하 ‘관계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여 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FVPL)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x4년중 회사는 해당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관계회사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였고 전환사채의 전환 전 장부가액\*을 추가 취득한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인식하고 별도의 처분손익은 인식하지 않았다.

\* 최종 공정가치 평가일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 전환권 행사 이후에도 관계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50% 미만으로 관계회사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

####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추가로 취득한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원가 산정시 지급한 대가(본 사례에서는 전환사채)의 공정가치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전환사채의 장부금액을 그대로 사용하여 관계기업투자주식과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하였다.



###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서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을 취득할 때 취득원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문단 10~11에 따라 개념체계나 유사한 거래의 회계기준을 준용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②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6.5(역사적원가)에 의하면 역사적원가는 자산 취득 등에 발생한 원가의 가치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 ③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문단 6과 24등에 의하면 취득원가는 일반적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④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추가 취득한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원가는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4. 시사점

회사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을 취득할 때 비현금대가를 지급한 경우 비현금대가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원가를 산정해야 한다.

또한 기준서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거래나 사건에 대해 경영진은 개념체계 및 다른 유사한 거래의 회계기준 등을 참고하여 적절한 회계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 FSS/2409-07 : 재고자산 허위계상 및 감사인의 독립성 의무 위반

- 쟁점 분야: 재고자산
- 관련 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재고자산)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 2014.1.1.~2021.12.31.

###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재고관리 등을 위해 외부 상용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사용하는 한편, 재고 관련 결산업무는 기장대리 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수행하였다.

회사는 원활한 금융회사 대출 실행 및 세무조사 회피 등을 위해 내부적으로 목표 당기 순이익을 설정함에 따라, 재고자산의 수량 등을 조작하여 재고자산을 허위 계상하고 유효기간 경과 또는 반품 등으로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에 중요하게 미달하는 재고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조작하였다.

##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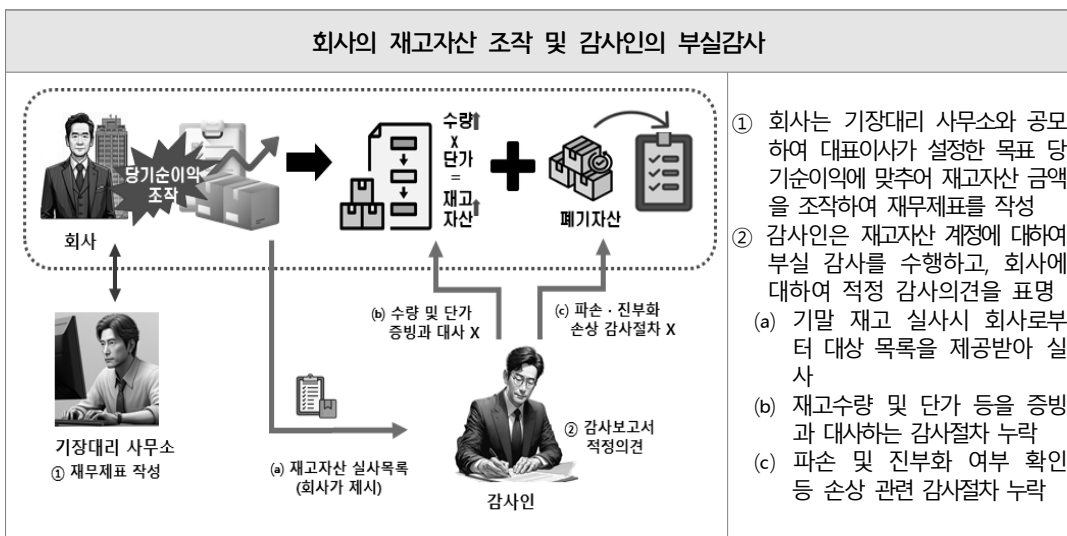
회사는 재무제표상 목표 당기순이익 달성을 위해 기말 재고자산명세를 증액 조작하고, 재고자산의 손상을 인식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재고자산을 허위로 과대계상하였다.

##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①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개념체계 문단 90 및 140에 따르면 자산은 과거 거래의 결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인식해야 하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문단 2.7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 재고자산 문단 7.16 및 7.19에 따르면 재고자산의 시가가 손상 등으로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 저가법을 적용하여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하고, 시가는 매 회계기말에 추정해야 한다.

##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및 500(감사증거)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감사인은 재고자산 실사시 실사대상 재고자산을 직접 선정하지 않고 회사로부터 재고자산 실사 목록을 제공받아 실사를 수행하였으며, 파손·진부화 재고자산의 손상 관련 검토 및 확인 등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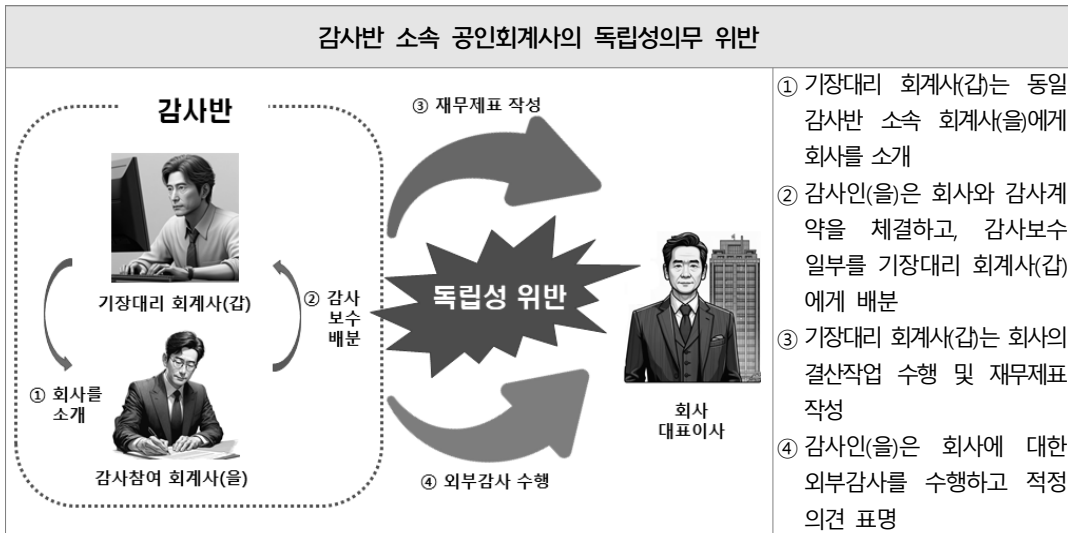






## 5. 독립성 의무 위반

-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제6조 제6항에 따르면 회사의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을 대신하여 작성해서는 아니 되며, 해당 회사는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이러한 행위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기장대리 공인회계사(갑)는 회사의 기장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동일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을)에게 외부감사업무를 소개하여 동일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갑)와 감사인(을)은 회사에 대해 각각 기장대리 및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하여 외부감사법상 독립성 의무를 위반하였다.
- ③ 회사 및 감사인은 동일 감사반 소속의 다른 공인회계사(갑)가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년 감사 계약을 체결하고 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독립성 의무 위반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계약 해지 등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 6. 시사점

- ① (회계처리 위반 관련) 감사인은 회사가 회계 부정을 저지를 가능성에 대하여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재고자산 실사 목록 등을 직접 선정하고, 재고자산 수량 등이 증빙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진부화 재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재고자산평가손실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② (독립성 의무 위반 관련) 감사인은 감사계약 체결시 동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가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업무를 수행하는지, 이해관계가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감사업무 중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여 독립성 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FSS/2409-08 :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허위계상

- 쟁점 분야: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및 제1016호(유형자산)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 2018.1.1.~2020.12.31.

###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경쟁력 부족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자본잠식상태가 지속되는 등 재무상황이 어려워지자 목표실적 달성을 위해, 판매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를 의도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장부상 유형자산으로 대체하거나 재고자산으로 기록하였다.

실물없는 재고자산 발생경위					
[매입시] : 재고자산 입고처리 수행					
(차변)	재고자산	xxx억원	(대변)	매입채무 등	xxx억원
[매출시] : 재고자산 출고처리 누락					
(차변)	매출채권 등	xxx억원	(대변)	매출	xxx억원
(차변)	매출원가	xxx억원	(대변)	재고자산	xxx억원

즉, 회사는 x1년 이후 재고자산의 출고처리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매출원가는 과소, 재고자산은 과대 계상하여 왔으며 매월 별도로 ‘원가조정’ 명목으로 차이금액을 순차적으로 해소하였다.

회사는 x4년중 자체적으로 전수 재고실사를 수행한 결과, 수 년간 누적된 재고자산의 장부가액과 실물 간 차이를 파악하였으나 일시에 매출원가로 조정하는 경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를 내용연수 동안 비용(감가상각) 처리가 가능한 유형자산으로 부당하게 대체하고, 미해소금액은 가공의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재고자산 판매시 관련 매출 인식 시점에 매출원가를 인식해야 함에도 이를 가공의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으로 허위 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간손익을 조작함으로써 당기 손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과소)계상하였다.



###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문단 34에 따르면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문단6에 따르면 유형자산은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이다.
- 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계상한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이 비용 인식을 부당하게 이연하기 위하여 인식한 가공의 자산으로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①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및 505(외부조회)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만약 조회에 대한 회신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요소를 식별하였다면 추가적인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하고, 불일치사항이 왜곡표시를 나타내는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 ② 감사인은 재고자산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보관처를 대상으로 전수조회절차를 수행하였으나 회신내역에 포함된 특이사항에 대하여 추가 증빙 확인, 조회처에 재확인 등과 같은 필수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조회서의 회수사실에만 근거하여 회신결과를 '일치함'으로 간주하였고, 재고자산을 유형자산으로 대체한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체목적 및 관련 증빙을 확인하기로 계획하였음에도, 충분한 전문가적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회사의 거짓설명을 그대로 수용하는 등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 5. 시사점

감사인은 자산의 실재성 확인을 위하여 모든 조회처를 대상으로 외부조회절차를 수행하기로 계획한 경우 단순히 회수여부 뿐만 아니라 회신내역에 기재된 특이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감사증거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고자산을 유형자산으로 대체하였다면 유형자산의 회계처리방식(감가상각)을 악용하여 비용인식을 이연할 목적으로 대체한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해당 거래의 발생배경 및 관련 증빙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 FSS/2409-09 : 퇴직급여충당부채 과대계상

- 쟁점 분야: 퇴직급여충당부채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개념체계
- 결정일: 2024년
- 회계결산일: 2020.1.1.~2022.12.31.

###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정보통신장비 등의 전원공급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회사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x1년말 일부 임원으로 하여금 본인에 대한 퇴직금의 추가 계상을 포기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추후 일정 기간 동안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추가 계상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실제로 회사는 x1~x6년 재무제표상 해당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추가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외부감사 과정에서 확인서 제시 및 당사자 면담 등을 통해 동 회계처리를 인정받았다.

회사는 x7년 외부감사 과정에서 지정감사인으로부터 퇴직급여충당부채 추가 미계상 사유에 대한 설명 및 관련 증빙 제출을 요청받았으나 회사는 지정감사인이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회사의 대주주(회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는 경우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합의서 등을 감사인에게 제출하지 않은 결과, 대상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상을 권고받았다.

이에 따라 회사는 x7년 감사보고서상 비교표시되는 x6년 재무제표 작성시 x1년 이후 인식하지 않았던 충당부채를 일시에 인식하였고, 이후 x7~x9년 해당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추가로 계상하였다.

###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당사자와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회사의 경제적 자원이 이전될 의무가 없는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지정감사인의 권고를 따르는 외형을 이용하여 소급하여 일시에 인식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하였다.

###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① 기업회계기준서 개념체계의 문단 4.27에 따르면 회사의 부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업에게 경제적자원을 이전할 의무가 있고 의무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이다.



#### 4.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인인은 회사의 퇴직급여충부채 계상 관련 감사 시 회사로부터 제시받은 감사증거에 따라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다고 판단되어, 지적하지 아니하였다.

#### 5. 시사점

감사인인은 회사 재무제표상 대표이사 등 회사의 특수관계인과의 약정에 따른 부채나 자산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상 해당 자산과 부채가 기준서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감사절차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회사와 특수관계인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련 자산·부채에 대한 감사시 감사기준이 요구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며,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기재된 문서나 당사자에 대한 인터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 FSS/2409-10 : 횡령 은폐를 위한 매출채권 허위계상

- 쟁점 분야: 매출채권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 2016.1.1.~2020.12.31.

####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화섬원사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회사의 회계 담당직원(이하 ‘직원 갑’)은 15년 이상 자금·회계업무를 동시에 담당하였다.

직원 갑은 법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회계장부상 입·출금 기록을 대사하는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상급자 승인 없이 본인이 직접 회계장부에 전표를 작성하고 입력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거액의 자금 횡령을 계획하였다. 직원 갑은 대표이사의 결재 없이 은행으로부터 회사 명의의 무역금융차입을 실행하고 차입금이 법인 계좌에 입금되면 이를 본인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약 11년동안 400여회에 걸쳐 약 350억원을 횡령하였다.

직원 갑은 본인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매년말 회사의 여유자금으로 차입금 일부를 상환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연말 회계장부와 차입금 잔액이 일치되도록 하고, 현금부족액은 최근 거래가 없는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허위 계상하였다.

##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직원 갑이 장기간 회사 자금을 횡령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횡령 상당액을 매출채권에 허위계상하였으므로, 관련 자산을 불법행위미수금으로 계상하고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대손충당금으로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회계처리하지 않아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다.

##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고,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 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직원이 횡령을 은폐하기 위해 매출채권을 허위계상함으로써, 횡령액에 상당하는 횡령손실이 과소계상됨에 따라 회사의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이 과대계상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① 회계감사기준 505(외부조회)에 따르면 감사인은 외부조회 절차시 수신인의 주소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테스트하여야 하며, 미회신 조회서에 대하여 재무제표일 후 현금회수, 보고기간말에 근접하여 발생한 매출거래에 대한 조사 등 대체적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감사인은 매출채권 실재성 확인을 위한 외부조회와 관련하여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절차를 준수하였어야 함에도, 회사가 제시한 거래처 주소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조회서 회신이 저조하여 추가 조회서 발송시 감사인이 직접 발송과 회수를 수행해야 했음에도 이를 회사에 요청하여 직원 갑이 조회서를 직접 발송 및 회수하여 감사인에게 전달하였으나, 감사인은 촉박한 감사일정을 사유로 추가 확인 없이 감사절차를 종결하였다.

또한, 감사인은 미회신 거래처의 매출 발생 여부 및 채권회수에 대한 검토 등 대체적 감사절차를 수행하였다면, 매출채권이 허위계상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나 대체적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았다.

## 5. 시사점

회사는 자금·회계업무를 분리하여 장기간 동일인이 수행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고, 전표 입력시 적절한 승인권자의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제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현금실사 및 통장 잔액조회를 정기적으로 점검 및 수시로 실시하여 직원의 횡령 동기를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인은 회사의 채권에 대한 독립적인 외부조회서 절차 실시 및 비정상적인 분개 입력 여부 등 확인을 위해 회계감사기준에서 규정한 감사절차를 충실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

## FSS/2409-11 : 무형자산(개발비) 과대계상

- 쟁점 분야: 무형자산(개발비)
- 관련 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무형자산)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 2021.1.1.~2021.12.31.

###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자동차 자율주행 관련 부품의 제조를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자율주행을 위한 교통체계 인프라 구축 및 운전자지원시스템 등 관련 제품 및 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개발비를 지출하였다.

회사는 정부과제 및 고객 요구 사양에 따라 제품 및 기술을 개발하고 동 결과물을 사용·판매하고 있어, 회사의 개발활동이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회사는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하지 않고 연구개발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총액을 개발비(무형자산)로 계상하였다. 또한, 회사는 연구원별 실제 업무투입시간을 측정하여 합리적 기준에 따라 각 제품군에 배분하여야 함에도 전체 인건비를 임의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각 제품군에 배분하여 자산화하였다.

###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제품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개발비를 지출하였으며, 동 개발비는 무형자산 인식을 위한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의 경제적 효익 및 기술적·금전적 자원확보 요건 등은 충족하나 ‘원가의 신뢰성 있는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비용 처리가 불가피하였다.

회사는 개발비 자산화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할 금액을 개발비(자산)로 계상하여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다.

###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무형자산) 문단 11.7과 18 및 20에 따르면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하고,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을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 인식요건(신뢰성 있는 측정 등)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 4. 시사점

회사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개발비)이 인식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무형자산 창출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하기 위한 내부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세스와 통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FSS/2409-12 :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오류

- 쟁점 분야: 공정가치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 2021.1.1.~2021.12.31.

####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x1~x3년 중 미국 소재 스타트업 기업인 B사(이하 ‘해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공시가격 등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찾지 못하여 수준3의 공정가치 평가방법인 이익접근법에 따라 공정가치를 주당 \$3로 산정하여 x5년중 재무제표에 반영하였다.

이후 x5년말 전후 국내외 벤처펀드가 자금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실제 주당 \$20의 가격으로 증자 및 주식 매매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회사와 감사인은 x5년말 전후 해외법인 주식 거래는 ① 어느 시장에도 공시되는 가격이 아니고, ② 거래 당사자가 해외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대주주 등으로 제한되는 등 활성시장의 거래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거래 가격인 주당 \$20를 공정가치로 이용할 수 없다고 보고 x5년말 재무제표상 B사 주식을 계속 주당 \$3로 평가하였다.

####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B사 주식 평가시 최근 거래가격인 주당 \$20이 아니라 이익접근법에 따라 산정한 주당 \$3로 평가하여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하였다.





###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에 문단9에 따르면 공정가치는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이며, ‘투자대상이 비상장 주식인 경우의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문단4에 따르면 초기기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자를 포함하는 정상적인 자금조달 거래는 일반적으로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 변수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가정을 뒷받침하는 신뢰성 있는 증거로 볼 수 있다.
- ② 금융감독원은 x5년말 전후로 국내외 벤처펀드가 B사에 자금을 투자한 거래는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추가 자금조달 거래에 해당하는 관측 가능한 거래로서 공정가치 측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정상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B사 주식을 주당 \$20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4. 시사점

특정 거래가 공정가치 평가시 고려할 수 있는 정상거래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거래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단순히 이전 평가액과 차이가 크고, 거래가격이 시장에 공시되지 않는 가격이라는 점만으로 해당 거래가 정상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할 경우 재무제표의 왜곡표시가 발생할 수 있다.

#### FSS/2409-13 : 특수관계자 여부 및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 쟁점 분야: 특수관계자 공시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 2018.1.1.~2019.12.31.

###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소프트웨어의 공급 및 개발을 영위하는 코넥스 상장기업으로, 회사의 대표이사(최대주주)는 싱가포르에 가상화폐 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를 위한 비영리법인 B사를 설립하고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회사의 대표이사(최대주주)는 B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등 회사는 B사와 특수관계가 성립하였다.

회사는 B사를 대상으로 회사가 직접 개발한 코인 시스템의 공급 및 마케팅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을 인식하였는데, 이를 재무제표 주석상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에 누락하였다.

##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특수관계자인 B사에 대한 특수관계 여부 및 기중 거래 내역을 재무제표상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문단9에 따르면 보고기업의 주요경영진 일원에 의해 지배(공동지배 포함)되는 기업은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 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처리기준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주요경영진이 B사를 지배하고 있으므로 B사는 회사와 특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 15 및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문단6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 ② 감사인은 특수관계자 거래에 유의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으나, 관련 통제에 대한 이해 없이 형식적으로 평가하였고, 이사회 의사록을 형식적으로 검토한 결과 회사의 대표이사가 B사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회사와 B사 사이에 발생한 특이매출 거래구조 및 거래처의 특수성 등에 대하여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특수관계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 5. 시사점

감사인은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검토시 회사가 감사인에게 제시한 특수관계자만을 기준으로 검토해서는 아니되며, 회사의 특수관계자 거래공시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절차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특수관계자를 누락할 가능성에 대하여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 既 공개목록

공개번호	제목	쟁점분야	관련기준서	결정연도
FSS/1912-1	재고자산평가손실 과소계상	재고자산 평가손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2018
FSS/1912-2	재고자산평가충당금 과소계상	재고자산 평가손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2019
FSS/1912-3	재고자산 과대계상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2019
FSS/1912-4	관계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관계기업 투자주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028호	2018
FSS/1912-5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종속기업 투자주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2018
FSS/1912-6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종속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2018
FSS/1912-7	지분법투자주식 과소계상	지분법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2019
FSS/1912-8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소송채권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2018
FSS/1912-9	미수금 및 재고자산에 대한 충당금 미계상 등	충당금 인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舊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2019
FSS/1912-10	종속회사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2019
FSS/1912-11	무형자산 과대계상	무형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2019
FSS/1912-12	무형자산(개발비) 과대계상	무형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2018
FSS/1912-13	개발비 과대계상 등	개발비 인식요건	舊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2018
FSS/1912-14	개발비 손상차손 미인식	개발비 손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제1036호	2019
FSS/1912-15	종속기업의 전환우선주 발행관련 오류	종속기업의 전환우선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제1036호	2019
FSS/1912-16	매도가능증권 과대계상	매도가능증권	기업회계기준서	2018

공개번호	제목	쟁점분야	관련기준서	결정연도
			제1039호	
FSS/1912-17	선급금 과대계상	선급금	재무회계개념체계	2018
FSS/1912-18	이연법인세자산(이월결손금) 과대계상	이연법인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2018
FSS/1912-19	매각예정자산 손상차손 과소계상	매각예정자산 손상차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제1113호	2018
FSS/1912-20	담보제공자산 주식 미기재	주식 미기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제1107호	2019
FSS/1912-21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 기재 누락	특수관계자 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2018
FSS/1912-22	수익인식 오류	수익인식시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2019
FSS/1912-23	자금대여를 통한 허위매출 계상	허위매출계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재무회계개념체계	2018
FSS/1912-24	매출채권 과대 및 재고자산 과소계상 등	수익 인식	舊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2018
FSS/1912-25	연결범위 오류	연결범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舊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제1031호	2018
FSS/1912-26	전환사채 등 유동성 분류 오류	유동성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2019
FSS/1912-27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전환사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2019
FSS/1912-28	영업활동현금흐름 과소·과대계상	영업활동 현금흐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2019
FSS/1912-29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계정분류 오류	매각예정 비유동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2019
FSS/2008-01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등	매출·매출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2019
FSS/2008-02	매출 과대 및 매출원가 과소계상	총예정원가 과소계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2017
FSS/2008-03	매출 및 매출원가 기간귀속 오류	매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2017
FSS/2008-04	매출채권 및 차입금 과소계상	매출채권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2017
FSS/2008-05	공사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 과소계상	매출·매출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2017
FSS/2008-06	공사수익·원가 인식 오류	매출·매출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2017



공개번호	제목	쟁점분야	관련기준서	결정연도
FSS/2008-07	공사수익·원가 인식 오류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011호	2016
FSS/2008-08	공사수익·원가 등 과대·과소 계상	공사수익·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제1039호	2016
FSS/2008-09	공사수익 과대계상	공사수익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2016
FSS/2008-10	수익(매출) 기간귀속 오류	수익기간귀속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2017
FSS/2008-11	공사수익 오류	공사수익 인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2016
FSS/2008-12	공사진행률 산정 오류	수익인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2017
FSS/2008-13	재고자산 허위계상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2017
FSS/2008-14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소계상	지분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2017
FSS/2008-15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과대계상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2016
FSS/2008-16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 미인식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2017
FSS/2008-17	파생상품형가손실 과소계상	파생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2017
FSS/2008-18	파생금융부채 미계상	파생금융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2020
FSS/2008-19	파생상품평가이익 과소계상	파생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2016
FSS/2008-20	유형자산(건설중인자산) 및 미수금 허위계상	유형자산 및 미수금	재무회계개념체계	2018
FSS/2008-21	비업무용 부동산 과대계상	비업무용부동산 손상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0장	2016
FSS/2008-22	골프회원권 손상차손 미인식	골프회원권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0장	2015
FSS/2008-23	장기성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대손충당금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제1008호	2017
FSS/2008-24	소송관련 충당부채 과소계상	충당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2016
FSS/2008-25	저축은행의 대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오류	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2015
FSS/2008-26	대여금 계정분류 오류	대여금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2017

공개번호	제목	쟁점분야	관련기준서	결정연도
FSS/2008-27	지급수수료/차입금 과소계상	지급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2017
FSS/2008-28	유형자산 주식 과소기재	주식 미기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2016
FSS/2008-29	유무형자산 권리제한 사실 미기재	주식 미기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제1038호	2017
FSS/2008-30	유형자산 담보제공사실 등 주식 기재 오류	주식기재 오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2017
FSS/2008-31	연결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연결재무제표	舊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2015
FSS/2008-32	연결대상 종속회사 누락	연결범위	舊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2015
FSS/2008-33	전환상환우선주 계정 오류	전환상환우선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2017
FSS/2008-34	자회사 회계처리 위반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자본 과대계상	연결재무제표	舊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2017
FSS/2106-01	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	매출·매출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2020
FSS/2106-02	예정원가 오류로 인한 매출원가 과소계상	매출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2020
FSS/2106-03	매출 허위계상	매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2020
FSS/2106-04	수익인식(총액·순액) 오류	매출·매출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2020
FSS/2106-05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계상	종속기업 투자주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2020
FSS/2106-06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과소계상	종속기업 투자주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2020
FSS/2106-07	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계상	관계기업 투자주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제1036호	2020
FSS/2106-08	유형자산 허위계상	유형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016호	2020
FSS/2106-09	선급금 허위계상	선급금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1036호	2020
FSS/2106-10	대여금 허위계상	대여금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2020
FSS/2106-11	파생금융자산 과소계상 등	파생상품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2020
FSS/2106-12	파생금융부채 미계상	파생상품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2020

공개번호	제목	쟁점분야	관련기준서	결정연도
FSS/2106-13	매출채권 허위계상	매출채권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제1039호	2020
FSS/2106-14	종속기업 영업이익 과소·과대계상	연결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2020
FSS/2106-15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미기재	특수관계자 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2020
FSS/2206-01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매출·매출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2021
FSS/2206-02	대리점 임의반출을 통한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매출·매출원가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2021
FSS/2206-03	진행률 산정 오류로 인한 매출 과대계상	수익인식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제1018호	2021
FSS/2206-04	매출 허위계상 등	매출·매출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2021
FSS/2206-05	관계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관계기업 투자주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2021
FSS/2206-06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지분법적용투 자주식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2021
FSS/2206-07	재고자산 과대계상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2021
FSS/2206-08	유형자산 허위계상	유형자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2021
FSS/2206-09	사업결합 관련 무형자산 과대계상	사업결합 무형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2021
FSS/2206-10	내재파생상품 분리 및 파생상품부채 평가 누락	내재파생상품 파생상품부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2021
FSS/2206-11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2021
FSS/2206-12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계상	퇴직급여 충당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2021
FSS/2206-13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오류	연결재무 제표 작성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2021
FSS/2206-14	종속회사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연결재무제표에 반영	연결재무 제표 작성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2021
FSS/2206-15	특수관계자거래 주식 미기재	특수관계자 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2021
FSS/2311-01	위탁가맹점 관련 매출액	매출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2022

공개번호	제목	쟁점분야	관련기준서	결정연도
	과소계상	판매관리비		
FSS/2311-02	매출 조기인식을 통한 매출액 과대계상	매출·매출원가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2022
FSS/2311-03	유상사급 관련 매출액 과대계상	매출·매출원가 연결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제1001호, 제1110호	2022
FSS/2311-04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종속기업 투자주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2022
FSS/2311-05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종속기업 투자주식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2022
FSS/2311-06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과대계상	종속기업 투자주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2022
FSS/2311-0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오류	금융자산 공정가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113호	2022
FSS/2311-08	재고자산평가손실 미계상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2022
FSS/2311-09	재고자산평가손실 과소계상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2022
FSS/2311-10	유형자산 등 허위계상	유형자산 매출원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2022
FSS/2311-11	종속기업투자주식 관련 이연법인세부채 미계상	이연법인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2022
FSS/2311-12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이연법인세부채 과소계상	이연법인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2022
FSS/2311-13	전환사채 유동성분류 오류	전환사채 유동성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2022
FSS/2311-14	기타채무(관광전수금) 과소계상	기타채무 (관광전수금)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제1115호, 제1032호	2022
FSS/2311-15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과소·과대계상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2022
FSS/2311-16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특수관계자 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2022





공개번호	제목	쟁점분야	관련기준서	결정연도
FSS/2311-17	횡령손실 미인식 및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 미기재	횡령손실, 특수관계자 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024호	2022
FSS/2311-18	종속기업의 법인세비용 과소계상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 오류	연결재무제표 법인세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110호, 제1012호	2022
FSS/2405-01	미지급장려금 과소계상에 따른 매출 과대계상	매출, 매출채권 판매장려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제1001호	2023
FSS/2405-02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매출, 매출원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2023
FSS/2405-03	공사수익 및 공사미수금 과대계상	매출, 매출채권, 대손상각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제5장	2023
FSS/2405-04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매출, 매출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2023
FSS/2405-05	수익인식기준 적용 오류	수익인식시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2023
FSS/2405-06	매출 기간귀속 오류	수익인식시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2023
FSS/2405-07	재고자산 과대계상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2023
FSS/2405-08	재고자산 과대계상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2023
FSS/2405-09	파생상품 등 허위계상	파생상품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2023
FSS/2405-10	횡령 은폐를 위한 가공의 자산 계상	허위 계약,, 허위 외주가공비, 선급금 허위계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2023
FSS/2405-11	전용실시권(무형자산)의 비용계상 오류	개별취득 무형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2023
FSS/2405-12	이연법인세부채 과소 계상	이연법인세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2023
FSS/2405-13	금융상품 계정분류 오류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2023
FSS/2405-14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식 미기재	특수관계자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2023